

수적 우위·강자가 포진된 라인을 찾아라!

7인제 레이스 수적 우위 라인 분석
기량 높은 해결사가 경기 뒤집기도
결승 진출 걸린 토요일 경쟁 더 치열

올해 경륜 경주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혼전 경주가 거듭되고 있다. 과거에는 각 지역간이나 범수도권과 경상권, 호남권 등의 연합대결 등이 뜨거웠지만 지금은 지역을 불문하고 파업으로 인해 경주에 출전하지 않던 선수들과 계속 경주에 나선 선수들 간의 대결 양상으로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다. 또한 전에는 지역대결을 펼치더라도 상대 득점이나 기량을 인정하는 모양새였으나 지금은 각자의 라인을 구축해 정면대결을 펼치는 등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혼전 경주가 많아보니 득점만 본다거나 기량을 우선하는 경기 분석 외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해졌다.

●수적 우위를 점한 라인을 공략

우선 현재 경륜은 7인제 경주라 어디든 수적 우위의 라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느 라인이 수적으로 유리한지 파악하면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결승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1회차까지 광명, 창원, 부산 결승에서 선발급은 파업 참여 선수들이 24



광명스피돔에서 치열한 자리다툼을 하는 선수들. 역대급 혼전 경주가 이어지며 경기 예측에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졌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번 우승을 했고 비파업 선수들이 17번 우승했다. 반대로 우수급은 비파업 선수들이 32번, 파업선수들이 11번 우승했다. 특선급은 선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비파업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선발급은 파업 참여 선수들 중 강급자가 많아 다소 경기력은 떨어졌지만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수급은 기량과 경기감각이 뛰어난 비파업선수들이 많아 결승에 대거 진출했다.

●라인별 기량 우수자 파악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다. 5월8일 부산 우수급 결승의 경우 파업 참여 선수가 5명에 비파업선수가 2명이었다. 정현수(26기 계양)가 포진된 파업 참여 선수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박진철(22기 경남개인)이 쫓아기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뒤를 문인재(24기 금정)가 따라 들어오며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을 이끌었다.

5월1일 광명 선발급 결승도 배석현(26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가 파업 선수들이었는데 배석현이 선행으로 뒤따른 경쟁 상대들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외 경주들도 파업선수들이나 비파업선수들 중 강자가 포진된 라인에서 대거 우승을 기록했다. 아예 1, 2, 3차까지 씩씩이하는 경향도 보였다.

●요일별 레이스 목표에 주의

금요일경주는 기선제압을 해야 토, 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토요일경주는 결승 진출이 걸려 있고 경주 수의 확대로 우승을 못하면 자력 결승진출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든 결승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각자의 라인을 최대한 진출시키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일요일경주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워야하고 특히 향후 게임을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경기를 펼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명품경륜 승부사 김순규 수석기자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혼전 경주가 이어지고 당분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최근 현상을 잘 파악하고 신중한 공략에 나서야한다”며 “어느 라인이 유리한지, 강자가 포진된 라인이 어디인지, 최근 컨디션 좋은 선수가 어떤 전법을 구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하고 전처럼 줄서기나 득점, 기량을 뽐ن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륜·경정 메타버스 공간 오픈 Speed On 월드서 체험하세요

MZ세대 위한 체험형 놀이공간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륜·경정 온라인 체험 공간 ‘Speed On 월드’(사진)를 시작했다.
‘Speed On 월드’는 세계 2억 명 이상의 유저가 사용 중인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스피돔 경륜장, 미사리 경정장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현된 ‘Speed On 월드’는 자전거와 모터보트 체험, 레이스 챌린지, 경륜경정 사업 소개·홍보 공간 등 MZ세대를 위한 체험형 놀이공간을 구축했다. 영화 아바타를 모티브로 한 월드 2층에서는 경정용 모터보트 운행을 즐길 수 있고 월드 1층에서는 경륜경기장인 벨로드롬에서 경륜용 픽시(고정 기어) 자전거를 이용해 다른 유저들과 기록 경쟁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Speed On 월드’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패기 앞세운 14~16기 신예들 ‘경정 청량제’

빠른 적응·공격적 레이스로 맹활약

경정은 미사리경정장에서 20년 가까이 수면 위의 너울과 맞서며 순위 다툼과 노하우를 쌓아온 1, 2기 선배들이 최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패기를 앞세운 14, 15, 16기 신예들이 준수한 배당과 함께 팬들이 경주를 관람하는 데 청량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후보생 시절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후 데뷔해 기존 선배들보다 빠른 수면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데뷔한 14기는 총 12명이다. 기수를 대표하는 선수로는 원래 박원규를 꼽지만 1월 플라잉으로 잠시 공백기가 생겼

다. 박원규는 평균득점 5.50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두는 평균득점 6.03의 이휘동이 올랐다. 승률 부문에서는 이휘동이 25%, 박원규가 40%로 차이가 있다. 그 뒤를 이어 조규태가 4.64로 3위이고 고정환이 3.89로 4위, 구본선이 3.14로 5위다.
2018년에 데뷔한 15기는 16명이다. 올해 성적은 김지영이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균득점 5.33에 승률도 20%로 가장 높다. 스타트와 전술 운영에 있어 자신감을 찾은 것이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뒤로 정세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균득점 4.95에 승률 16%를 기록 중이다. 정승호가 4.77로 3위이고 한준희가 4.20으로 4위, 이인이 4.05로 5위다.



미사리 경정장에서 선수들이 턴마크를 돌며 접전을 펼치고 있다. 14~16기 신예들이 요즘 레이스에서 신선한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특히 15기 중 김지영과 함께 눈에 띄는 선수는 약체로 평가됐던 정승호의 분전이다. 지난해까지 입상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감을 잡지 못했으나 올해 벌써 우승 4회와 2차 9회, 3차 3회를 기록했다. 선회력이 안정되었고 빠른 스타트를 앞세워 아웃코스에서도 선두권이 가능하다.

경정 막내인 16기는 11명이다. 나종호와 홍진수가 투톱을 이루고 있다. 신인왕전 우승자인 나종호가 평균득점 6.28과 승률 31%로 출중한 기량을 뽐내고 있으며 2위인 홍진수가 평균득점 5.57과 20%의 승률로 추격 중이다. 김보경이 3위로 3.93을 기록 중, 전동욱이 3.50으로 4위, 박민성이 3.40으로 평균득점 5위다.
경정 쾌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몇몇 선배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매번기 주선보류를 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 신예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을 펼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순간 대응이나 경향 상황에서의 대처 등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경정을 관람하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광명스피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1월27일까지 ‘스피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사진)를 운영한다. 광명스피돔 1층에 위치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하루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진행한다. 정비는 자전거 전문 정비사와 정비 능력이 검증된 은퇴 경륜 선수들이 맡아 진행한다. 생활자전거 안전점검과 수리는 물론 핸들그립, 브레이크, 스텐드, 오토레버, 스프라켓, 체인, 보조바퀴, 페달, 튜브 등 9종의 부품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칠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III (갱신형)

간편심사통과시 가입가능

나이 많아도 (40~75세) | 지병이 있어도 | 수술 병력이 있어도 |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힘들었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스텝가마솥 1개
상당 완료 시
무료증정!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분 이상 상담 시 (개인정보 제외)
• 배움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 (1인 1회 한정)
• 당사 제품 사용 시 10% 할인 혜택 제공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준 30일 환불을 보장하지 않음
• 조기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됨



• 가입 후 90일 이후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이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